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생명 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배아 즐기세포 연구, 살인인가 치유인가?

체세포 핵 이식 방법에 따른 1997년 복제 양 돌리의 출현이 단성(單性) 무 배우자 생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식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그 기술이 인간에게까지 적용되어 황 우석 교수가 2004년 인간 배아 복제 (핵을 제거한 난자에 성인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이식해 배아를 만들. 사람의 경우 임신 7주까지 분화된 수정란을 배아라 부름) 에 처음 성공했고, 올해는 난치병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핵 이식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일치하는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환자의 몸 에 대한 거부 반응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인간 배아에게서 배아 즐기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포 치료제나 신약을 개발할 것이라는 것이 황 우석 교수 연구의 핵심이다. 척추 마비, 파킨슨씨병, 치매, 당뇨병 같이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는 효율적인 세포 치료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 서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이 우리 나라에 과학적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배아 즐기 세포란 인간 배아의 생성 후 약 14일이 지난 배반포 단계의 인간 배아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체의 모든 장구나 조직으로 자랄 수 있는 일종의 만능 세포이다.

문제는 배아 즐기 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배아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능 세포를 얻기 위해 자궁에 착상시키면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제 배아를 죽여야 하는가? “인간 생명체를 의학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미명으로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단순한 생물학적 재료 수준으로 격하시키거나, 한 번 쓰고 버릴 생물학적 재료로 취급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 행위인지” 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따른 질병 치료와 인간 존엄성이 부딪치는 대척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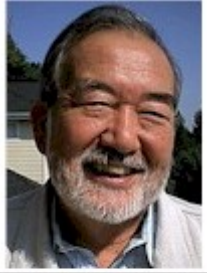
문제는 난자와 체세포의 결합 이후 14일이 생명인 나 아니냐에 있다. 생명인가 세포 덩어리인가? 연구 찬성론자들은 배아 형성후 14일 간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파괴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간의 배아는 수정의 순간부터 확실하게 한 인간 생명으로 결정된 주체이며,

<3면으로 계속>

2005 쇄신 세미나 일정

11/4-6	봉사자 세미나; KSC; 서북미 봉사회; 이 용명 안드레아(425-239-8575)
11/11-13	2005 National Leaders Conference; NSC; 이 은경 줄리아 (253-223-8775)
12/1-4	성령 안의 삶 세미나; KSC, 알래스카 본당; 이 은경 줄리아 (253-223-8775)
12/27-30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중남부 봉사회; 김 재문(832-640-1404)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성체 줄기세포가 대안입니다.

황 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결과 발표가 온 나라를 들끓게 했습니다. 성급한 이들은 산업 혁명에 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결코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생명

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지 신자로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기에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여기 소개합니다.

.....(전략)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복제하여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한 인간을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근본적으로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의학과 생명과학의 목적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배아는 수정의 순간부터 확실하게 한 인간 생명으로 결정된 주체이며, 바로 그때부터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을 시작하게 되므로, 그 진행 과정의 어떤 단계도 단순히 세포덩이로만 여겨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주체는 인간 개체로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인간배아를 연구나 실험용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수단으로 삼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한다고 하여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 생명을 치료하고자 또 다른 생명을 제삼자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희생시키는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과학기술을 결코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배아라 할지라도 틀림없는 인간 생명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아였습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얻으려면 생명체인 배아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배아 상태의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고 자기 결정권을 수행하지 못하는 생명을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며 기득권자의 횡포입니다. 행위의 목표가 선한 것이라면 목표를 이루어 내는 수단마저도 선해야 합니다. 행위의 목표가 윤리성을 지녀야 하듯이 그 수단도 윤리성을 지녀야 합니다.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임상적으로도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치료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뿐더러 안전성도 탁월합니다.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줄기세포가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배아줄기세포 대신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생명과학은 학문으로서 자율성과 자유를 담보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생명과학 역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와 자율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와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건강한 양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명심이나 상업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한 책임과 양식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명과학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목표로 삼을 때 그 도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학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눈부신 업적에 자만하지 말고 거듭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고뇌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엇이냐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식별하고 기꺼이 포기하는 용단을 내릴 때 생명과학은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의 올바른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덩이로 여긴다거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로 여기면서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 죽음의 문화를 급속도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 결과에 열광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25일까지 후원 내역

박 헤레나	Federal Way (WA)	\$100.00
김 수산나	Minneapolis (MN)	\$500.00
MN 기도회	St. Paul (MN)	\$200.00
신 캐로라인	Brooklyn Park (MN)	\$100.00
김 선단	Burlington (NC)	\$100.00
문루시나	Calgary (AB)	C \$100.00
Le Jeon Corp	Tacoma (WA)	\$100.00

<1면에서 계속>

바로 그때부터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을 시작하게 되므로, 그 진행 과정의 어떤 단계도 단 순히 세포덩이로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가톨릭의 입장이다.

논란은, 자연에 있어서 진정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매우 과학적이고 종교적이며 형이상학적인 데에 이르게 된다. 종교와 과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인가? 종교적 윤리와 과학의 인류 복지 둘 다를 놓치지 않고, 종교의 지혜가 과학의 성과를 잘 아우를 수는 없는 것인가?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배아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미 임상적으로도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성체 줄기 세포 치료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으므로 배아 줄기 세포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체 줄기 세포는 성인의 골수나 탯줄 혈액 등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장기 세포로 분화되기 직전의 원시 세포로서 증식력이 떨어지고 특정 조직으로만 전환되는 방향성을 띠는 단점이 있으나, 환자 몸에서의 거부 반응이 적고 암세포로 변이될 가능성도 배아 줄기 세포보다 낮은 장점이 있다. 배아 줄기 세포와 성체 줄기 세포 중 어느 것이 질병 치료를 위해 더 가치 있게 활용 가능한지는 과학 및 임상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성체 줄기 세포 연구 분야가 더욱 확장되고 발전된 후 가려질 일이다.

서울 대교구와 가톨릭 학원은 국내 모든 성체 줄기 세포 연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가톨릭 중앙 의료원 내에 ‘가톨릭 세포 치료 사업단’을 조직하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성체 줄기 세포 연구와 생명 존중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황박사의 연구 성과는 자금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 법 제정 이전 뿐 아니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배아 복제에 관한 연구 실험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은 배아 복제 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8월 생명 복제를 반대해온 베네딕토 16세의 호소로 불임 치료와 배아 복제 연구 규제 완화를 위해 실시된 생명 윤리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교황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생명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표 거부를 독려했으며 대다수 가톨릭 신자들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성체 줄기 세포 연구를 권장하고 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토론토 예수 성심본당 성령 기도회 양 명애 요안나

우리의 간구를 듣기만 하시면 언제나 도와 주시고 아버지께 빌어 주시는 어머니! 이 지면을 통해 어머니께 감사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이를 처음 갖게 되었을 때 못생긴 엄마라도 닮아 나올까봐 얼굴에 딸을 낳게 되면 어머니 닮은 아이 낳게 하여 주세요 하였던 바람이 친 외가족 아무도 닮지 않은 얼마나 잘 생기고 예쁜 딸을 낳았는지 신기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늘 공부도 잘하게 해 주시고 밝고 맑게 지혜롭게 잘 크게 해 주시고 고2, 고3 때는 학교에서 밤 늦게 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려면 어두운 험한 길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어 어려움없이 잘 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대학에서 생명 공학이라는 학문을 좋아하여 전공하였지만 다 포기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어 성당에서 성서 배우고 성서 가르침 하게 해 주시고 레지오 단장 하면서는 그 단원 중 4명이 모두 수녀원에 가는 기쁨도 맛 보게 해 주신 어머니! 그리고 가톨릭 교리 신학원을 졸업하게 하시어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고 똑똑하고 진실하기 이를 데 없는 선교사 신랑 만나게 해 주셔서 지금은 어린 아이들 삼남매와 자식이 없고 병들고 치매 걸린 불쌍한 할머니 7분 모시고 자그마한 양노원을 꾸리며 살게 하신 어머니!

집안이 몹시 가난해도 재물 모으기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늘 하도록 이끌어 주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만 가득 합니다

둘째 셋째 아들들에게도 어디서 그렇게 수소문해서 점지해 놓으셨는지 착하고 예쁜 며느리들을 맞게 해 주셔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지난날 36년간 장부의 수입이 거의 없어서 직장 다니며 이렇게 저렇게 삼남매 양육시켜 주시고 부족한 것 도와 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었음을 알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당신을 닮게 해 달라고 한 것이 그때엔 걸 모습만 바랬던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심성이나 삶의 방법까지도 닮게 해 주심이 너무 감사 해서 눈물만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을 더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아서 어머니께 보답하는 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들 며느리가 저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은 어머니 것입니다.

어머니! 이세상에 힘들어서 지쳐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많은 엄마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여 주시어 힘과 위로 되어주시는 어머니 되어 주시고 엄마를 잃어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하는 자녀들도 보살펴 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Korean Renewal

(이 글은 NSC에서 발행하는 'Pentecost Today'에 재미 한인 성령 운동을 소개하는 'Korean Renewal'이란 제목으로 실린 글이다.)



재미 한인들의 성령운동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영적인 기도와 심령 기도 그리고 치유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의 파도가 주님의 권좌를 향해 물밀듯이 밀려가는 말로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영혼과 소리의 거대한 조화이다.”

이러한 정열적이고도 웅장한 기도가 한인 기도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심령 기도, 그리고 치유가 함께 한다. 안수 시간의 심령 기도는 회개가 주 내용으로서 때때로 기도자들의 뉘우침의 눈물이 따른다.

“내가 성령을 느꼈을 때는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구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약 20분 동안 뭐가 그리 우스운지 모르게 재미있고 신나더라구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예요. 내 몸 구석구석이 다시 살아 나는 듯한 대단한 체험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기쁨에 겨워 웃음을 멈추지 못하며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다.

한인 성령 운동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보다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성령을 보고 느끼며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기도회 또는 성령안의 삶 세미나를 통해 성령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내 약 1백만명의 한인들 중 10명에 1명 정도가 천주교 신자이다. 한인 신부가 거주하는 117개의 한인 커뮤니티 또는 본당에 8만 6천 명의 신자가 소속돼 있다. 거의 모든 한인 교회에 기도회가 구성돼 있고 기도회원은 약 3천명으로 추산된다.

미국내 천주교 한인 커뮤니티의 성령 운동의 주축은 KSC이다. KSC는 미 전국 조직으로서 한인 천주교 성령 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KSC는 북미주 한인 사제협의회에서 후원해 1992년 NSC와 미국 주교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직됐다. KSC는 한인 천주교 성령 운동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9개 지역 봉사회와 2개 성령 센터를 연결하고 있다. KSC는 세미나 교본과 지침 작성과 성령 세미나 주관, 그리고 봉사자 수련을 중점적으로 하며, KSC 봉사자들은 미 전국을 순회하면 봉사하고 있다. 아직 KSC가 받을 받지 못했던 알래스카도 12월 초에 봉사자들이 찾아가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주관할 예정이다.

KSC 는 웹 사이트를 운용 (<http://kscusa.org>), 자료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미주 한인 천주교 지역 성령 운동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협조하고 있다.

KSC 2006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 복음 선교 수련 회원 모집

- 일정: 2006년 2월 22일(수) - 26일(일) 4박 5일
- 집합 시간: 2월 22일(수) 4:30pm, Mexico City 국제공항
- 출발 시간: 2월 26일(일) 2:00pm 이후, Mexico city 국제공항
- 회비: \$450 (숙식과 교통비 포함)
Check : Payable to KSC
- 비행기표: 항공료는 별도이며, 각자 구입.
- 신청서 접수: KSC 커뮤니케이션 센터,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 항공사: (문의) 이은경 Julia Lee,
253-223-8775 Fax: 253-663-4407
- 마감: 2006년 2월 2일 (선착순 40명)